

추밀공, 충헌공 추향제 봉행

樞密公, 忠憲公



△12추밀공 단소에서 권석구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충헌공단소에서 권순선 초헌관(대중원 부총재)이 헌작하고 있다.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10월 19일 (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 추밀공(휘諱: 수평水平.10世), 충헌공 휘(諱:제題.11世)단소(壇所)에서 파친 2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 참제를

정헌공(正獻公) 추향제 봉행



△정헌공 추향제 권석구 초헌관이 부복하고 권우식씨가 독축하고 있다.

정헌공종회(회장 권준식)는 지난 10월12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정헌공(휘 왕후)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서울에서는 해동동로터리에 서 권영록·권재복씨의 인솔로 오전 8시에 전세버스(1대)를 이용했으며 대전(1대), 연천(1대), 대구(1대), 청원(1대), 충주, 김포, 파주, 인천, 용인, 이천, 정읍 등 전국 각처에서 개인, 승용차편으로 450여명의 후손이 참제한 가운데 정헌공 의 9위분의 추향제를 봉행하였으며 특히 대법

관 권순일(55. 안성. 37世.추밀공파, 2014.9.12 취임)씨가 참제해 밀직공(휘 중귀 15世)의 초헌관을 했다. 제례 봉행 전에 연임된 권준식회장의 인사와 대법관 권순일 부자를 소개하여 권 대법관인 감사인사를 하였고 참석한 문중들의 열렬한 격려 박수가 있었으며, 이어서 결산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날 오후에 권영빈 추밀공파대종회 사무국장의 안내로 권경일 기자의 권순일 대법관이 추밀공, 충헌공의 단소를 참배했다.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지면관 계로 4위분만 게재한다)

石洲公宗會 雲巖書院 秋享祭 奉行

석 주 공 종 회 운 암 서 원 추 향 제 봉 행



△광주시 화암동 운암서원 독축장면

지난 9월 23일 11시에 광주시 북구 화암동에 소재한 운암서원(雲巖書院)에서 해광 송제민(海狂 宋齋民)선생과 석주 권필(石洲 權輔)선생, 화암 송타(花庵 宋柁)선생의 추향제가 안동권씨 추밀공파 후손과 홍주 송씨 후손 그리고 광주시 유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운암서원은 숙종34년 (서기 1708년) 해광 송제민 선생과 석주 권필 선생과 화암 송타선생 3위의 유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호남의 사립 300여명의 발의로 창건되었으며 1988년에 광주시 북구 화암동에 증건하여 송영수회장과 오인균원장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석주 권필 (石洲 權輔)선생은 추밀공파 22세로 예조참의(禮曹參議)



△운암서원 추향제후 제관 기념촬영

(1대), 대전(1대) 등 그리고 전국 각지 문중별 삼삼오오 승용차량으로 편승하여 멀리 부산, 경주, 대구, 나주, 광주, 원주, 청주, 음성, 연천, 양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전년보다 30여명이 증가 참제한 가운데 제례에 앞서 권혁승 파종회장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원근 각지에서 참제 하신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강릉,대전에서는 버스로 많은 참제객을 인솔하여 제제지원으로 감사드리ند며, 서두 인사한 후, 공지사항으로 지난 해 부터 숙원했던 추밀공파대종회 카페 신설했는데 현재 100여명의 회원등록으로 미흡한 실정이니 우리 파친의 많은 홍보게도와 참여의식을 고취(鼓吹)하고 근간 파괴 등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모두들 매사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다. 이어 추밀공단소에서 제례를 봉행하고 이어서 공(公)의 아들인 충헌공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집사분정은 ■樞密公: △초헌관:權錫九 △아현관:權萬洙 △중헌관:權純八 △집례:權寧珍△축관 權五烈 ■忠憲公: △초헌관:權純善 △아현관:權寧夫 △중헌관:權仁遠 △집례/축관(상동) <권범준 기자>



△밀직공 추향제 권순일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좌로부터 권순일 대법관 순일씨 부친, 준식 정헌공회장, 석원 한국부리 정보사장(위쪽)

■정헌공 : △초헌관:權錫九 △아현관:權鎬翼 △중헌관:權赫彩 △집례:權南玉 △대축:權莫植 ■밀직공 : △초헌관:權純一 △아현관:權善漢 △중헌관:權熙貞 △대축:權貞澤 ■부윤공 : △초헌관:權南周 △아현관:權泰均 △중헌관:權炳善 △대축:權鎬俊 ■좌윤공 : △초헌관:權泰儀 △아현관:權龍澤 △중헌관:權地遠 △집례:權白遠 △대축:權容甲 <기사·사진: 권경일기자>

해광 송제민(海狂 宋齋民)선생은 명종4년(당암) 홍주 송씨 가문에서 출생하여 천성의 효자로 불리웠고, 성리학에 심취하고 토정 이지함(土亭 李芝函) 선생을 사사(事師)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김천일 의병대장의 종사관이 되어 발산성 혈전에서 왜적의 강단을 서늘하게 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제례는 초헌관 박태근(朴泰根) 아현관 박춘곤(朴春坤) 중헌관 오종채(吳鍾榮) 집례 김형신(金炯伸) 축 김선호(金善鎬) 알차 송태백(宋泰白) 그리고 석주공 종회에서 권경일(權景一)이 사준으로 엄숙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권경일기자>



副戶長公派 700년만에 派祖 告由祭 奉行

부 호 장 공 파 7 0 0 년 만 에 파 조 고 유 제 봉 행



△10월 11일 일원정에서 파조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의 오랜 숙원이었던 파조(派祖)의 추향(秋享)을 모시기 위해 7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고유제(告由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지난 10월 11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부호장공파 참제원(參祭員)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날 고유분정(告由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중수(權重錫), 아현관(亞獻官) 권영성(權寧成), 종헌관(終獻官) 권인호(權仁虎), 고유문(告由文) 권오진(權五璉), 집례(執禮) 권영문(權寧文)이 각각 담당하였다. 이날 고유제에 참석한 참제원들은 처음 치르는 행사로 1시간 이상 봉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파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하였다.

같은날 제55회 안동시민체육대회가 시민운동장에서 열리자 많은 종원(宗員)과 부녀회원들이 두 곳에서 동시에 참석하는 바람에 다소 지장을 받기도 했다.

고유제를 마친 권중수 초헌관은 인사말에서 “다른 파종회는 설단(設壇)을 만들어 파조에게 고유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파는 이번 기회에 신주(神主)를 모시며 다 같이 송조사상(崇祖思想)를 보다 많이 갖자”고 강조했다. 권병균 파종회장도 인사말에서 “파조 할아버지를 700여년간 구천(九泉)에 계시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함으로 후손으로서 뜻깊고 한없이 자랑스롭습니다. 신주는 깨끗하고 아담한 곳에 모시며 앞으로 종원끼리 뽕뽕 뭉쳐서 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상을

북야공파종회 2014년도 운영위원회



△북야공파종회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권계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북야공파종회(僕射公派宗會 : 회장 權啓東)는 10월 14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북야공파종회관에서 권두갑(權斗甲) 고문과 권중준(權鍾濬) 자문위원을 비롯한 원로(元老) 여섯 분과 종원(宗員)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오익(權五翼)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묘소(始祖墓所) 및 파조단소(派祖壇所)를 향한 망배(望拜)에 이어 상읍례(相揖禮)가 있었다.

권계동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많은 족친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늘의 모임은 다가오는 11월 23일(음력 10월 2일) 파조 추향제를 잘 봉행하기 위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고 예산문제와 도유사(都育使) 및 재유사(齎育使) 선임 등을 논의코자 한다고 하였으며 덧붙혀 지난 2011년에 안동권씨파종협회의가 결성되고 2013년은 안동시내 일원정(一源亭)에서, 2014년은 영덕에서 회의를 마친 후 오봉종택(五峯宗宅)을 탐방하였고 지난 9월은 경남 산청에서 북야공파 안분당(安分堂)



△추향제후 일원정에서 기념촬영

모시자”고 말했다. 경북 유도회(儒道會) 부회장이며 고유문을 읽은 권오진씨는 “700여 년 동안 파조 할아버지 제사를 못 지내다 오늘 고유를 올리니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1년에 한번씩 올리는 제사는 제사의 목적도 있지만 후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의를 가지고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은 오늘 접수된 성금은 부호장공파 2개 문중(門中) 6개 계열(系列)과 종원 45명으로부터 총 510만 원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고유제를 마친 종원들은 일원정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화가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다가 식사가 끝나자 일원정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파조 향사는 매년 양력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정일(定日)로 결정하였다.

고려 초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휘(諱) 행(幸)을 비조(鼻祖)로 하여 10세(世)에 이르러 부호장공(副戶長公)인 휘(諱) 시중(時中)이 파조(派祖)이다. 파조에 관한 많은 자료는 없으나 파조유목(派祖遺墨)에 의하면 고려 고종 2년(1265) 을축(乙丑) 8월 7일 봉우에게 보낸 서찰 끝머리에 ‘權時中 삼가 드림’이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파조가 고려 고종 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파조는 두 아들을 두고 오랜 세월 대(代)를 이어 자손은 번성하였으나 파조 묘역(墓域)이 실전(失傳)되었고 부인에 관한 기록이 전연 없어서 부인의 성씨 고향 등은 알 수 없다. <보도부장 권영진>

검교공 추향제봉행 및 정기총회



△상주시 공검 올곡리 송덕재에서 검교공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강)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상주시 공검면 올곡리 소재 송덕재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100여명의 후손이 검교공(휘 僞)의 추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 참제를 위해 우천에도 불구하고 검교공파서울파친회(회장 권오운)에서 관광버스편으로 30여명과 안동, 영주, 상주, 성주, 대구, 예산, 아산 등 전국 각처에서 참제원이 참제했다.

제례 후 이어 권영호 총무부장의 사회로 급년도 정기총회에 들어가 태사공 망배와, 열선조님 묵념, 상읍례를 하고 권태강회장이 전(前)권경택총무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어 인사말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제해준 파친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권오운 서울파친회장의 인사와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격려말이 있었다.

다음 권태정갑사의 감사보고와 총무부장의 경과·결산보고·기타토의로 회의를 모두 마쳤다.

花山府院君 歲享 및 定期總會

화 산 부 원 군 세 향 및 정 기 총 회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화산부원군 추향 독축모습

2014년 10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번지 화산부원군중증은 화산부원군 휘 북(花山府院君諱 復)과 아들 좌랑공 휘 온(左郎公諱 溫) 손자 부정공 휘 옥(副正公諱 旭)의 세향(歲享)을 봉행하였다. 세향을 위하여 몇일전부터 도유사 권경택(都有司 權堉澤) 부부는 묵욕 재개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오직 선조의 제수장만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마음으로 숙의하여 받들고자 새벽부터 준비하여 우선 부정공 휘 옥(副正公 諱 旭) 묘소에서 초헌관 창령에서 올라온 지신공계원회(元會), 아현관 지사공 찬옥(贊

또한 권오운 검교공파 서울파친 회장은 추향 전일 10월 12일 관광버스로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남중공 단소를 참배한 후 하회마을, 병산서원을 경유하며 워당 종회에서 숙박하고 당일(13일) 오전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강)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상주시 공검면 올곡리 소재 송덕재에서 우천으로 인하여 100여명의 후손이 검교공(휘 僞)의 추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 참제를 위해 우천에도 불구하고 검교공파서울파친회(회장 권오운)에서 관광버스편으로 30여명과 안동, 영주, 상주, 성주, 대구, 예산, 아산 등 전국 각처에서 참제원이 참제했다. 제례 후 이어 권영호 총무부장의 사회로 급년도 정기총회에 들어가 태사공 망배와, 열선조님 묵념, 상읍례를 하고 권태강회장이 전(前)권경택총무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어 인사말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제해준 파친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권오운 서울파친회장의 인사와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격려말이 있었다. 다음 권태정갑사의 감사보고와 총무부장의 경과·결산보고·기타토의로 회의를 모두 마쳤다.

단소에 도착해 추향제에 참제하였다. 이어 검교공파서를 종친회 회원들은 귀경길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양촌 권 근 삼대 묘소(충북도 문화재)를 참배하여 조상 분들의 빛난 발자취에 감명을 받고 후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을 가진 후,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교 설립자이며 총장을 역임한故 권영우 前 이사장 묘소를 참배하고 세명대학교 배려로 인근 “비원” 음식점에서 화가에애한 정담을 나누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權五鶴 ▲아현관 : 權盛一 ▲중헌관 : 權泰三 ▲대축 : 權五燮 집례 權春卓 ※ [알림] 지난 10월 1일자 안동권씨종보 2면 광고에 게재한 검교공파 임원진 부회장 명단에 權泰雄씨가 누락되었으며, 또한 운영위원 명단에 權寧直씨를 權憲直씨로 바로잡습니다. <총무부장 권영보, 서울검교파친회장 권오운>

花山府院君 歲享 및 定期總會

화 산 부 원 군 세 향 및 정 기 총 회

玉), 중헌관 주부공(主簿公) 섭택(燮澤)씨가 헌작(獻爵)을 하였다. 오전에는 정헌공(正獻公) 밀직공(密直公) 부윤공(府尹公) 집의공(執義公) 직장공(直長公)의 향례(享禮)를 마치고 오후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향사에 초헌관 권혜택(權惠澤), 아현관 종숙(鍾淑), 종헌관 화성(和城) 축관 희철(熙哲) 집례 남옥(南玉) 좌랑공(左郎公) 초헌 진기(鎭基) 아현 영관(寧寬) 종헌 영길(寧吉)씨가 헌작(獻爵)을 하였다. 이어서 종회(總會)를 열어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太師公) 망배(望拜) 선조(先祖)님에 대한 묵념 상읍례(相揖禮), 회장 인사와 참석(參席)자 소개 후 감사(監事)의 감사보고(監查報告) 경과보고(經過報告) 결산보고(決算報告) 예산안(豫算案) 처리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재미를 즐기며 준비한 음식과 음복주를 나누며 후손들이 화가에애한 가운데 하산하였다. <화산부원군 종회회장 권 정택>

杏洲書院(紀功祠) 春享祭

2014년10월8일 10시30분 경기 고양 덕양구 행주동의 기공사에서는 관내 유림들과 행주서원 유사들의 주선으로 추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행주산성에는 1603년에 건립한 행주 대첩비가 비각 속에 남아있으며 1963년에 세운 대첩비도 서 있다. 이 비의 전면 글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것이다. 1970년 대대적인 정화공사를 하면서 권을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를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워 경역을 규모있게 조성하면서 1845년에 세운 행주 기공사 경내의 대첩비는 충장사 옆으로 옮겼으나 대첩비가 원래의 있던 기공사(사당)으로 2011년 9월에 제자리로 옮겼다. 향사를 마치고 행주서원 강홍강원장의 인사말 중 중요한 점은 서원



옆 동쪽 부지는 이미 매입하여 서원 확장공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앞 토지와 주택도 매입하여 철거 후 홍살문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및 집사 初獻官 고양시 덕양구청장 李相榮, 亞獻官 경기도 의회의원 郭美淑, 終獻官 고양시 儒林代表 李載坤, 宣柱晚, 趙敦煌, 邊鎮弼, 李殷先, 李殷先, 金白虎, 대축 成均館典儀 權貞澤, 집례 도유사 宣燮永